

# 단행본시장에 대형출판사들 속속 참여

## 막대한 투자로 계속 증가... 미개척 분야 개발 등에 관심가져야

과거 전집물·학습참고서·사전류를 출판해온 이른바 대형출판사들이 아동과 성인용의 일반 단행본을 대량 생산하면서 새로운 출판 흐름을 형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현상은 동아·삼성·웅진·국민서관·계몽사 등 거의 모든 대형사들에 해당되며, 특히 2, 3년전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데 금년들어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몇몇 출판사들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단행본사를 별도 운영하면서 시장진출을 꾀하고 있다.

대형출판사들의 활발한 단행본 시장 참여에 대한 출판계 안팎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즉 안정된 재정기반을 가진 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단행본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긍정론과, 그와는 반대로 과도한 물량공세로 시장질서의 오도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확고한 영역을 확보한 전집물과 가장 방대한 시장인 학습참고서 시장을 '주름잡던' 대형사들이 단행본에 눈길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간단하지 않다는 게 출판계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들이 안고 있는 두가지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먼저 그들의 주력상품인 전집물과 학습참고서가 출판의 문화적 기여란 측면에서 단행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판단에서 일종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는 것이며, 대형사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다른 한계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전집이나 사전의 위험부담에 있다. 더 이상의 모험을 꺼려한다는 얘긴데, 초판과 개정판만을 납본받기 시작한 작년 5월8일 이후 대형사들의 납본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소자본으로도 다양한 출판이 가능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는 단행본의 매력에 이끌렸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단행본 시장의 규모가 연간 4천억원 정도로 지난 몇년사이 급성장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차적으로는 정제된 대형출판사들의 편집업무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 마련도 된다는 게 출판인들의 보편적인 견해다.

한편 대형사들의 본격적인 단행본 출판을 부추긴 계기를 아동도서 시장의 변화에서 찾기도 한다.

"전집이 주류를 이루던 예전과 달리, 단행본 아동서가 독자들의 기호와 일치해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아동물을 내던 대개의 대형출판사들이 단행본을 출판하는 경향이 늘었다"

**종래 전집물 등에 주력하던**

**대형출판사들이 탄탄한 재력을**

**비탕으로 단행본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1, 2년 사이 1백여종의**

**실적을 올린 곳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와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이들 대형출판사들의 단행본**

**시장점유율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고 말한 출판협회 고홍식차장은, 이런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아동·문학분야에만 치중돼**

이들 대형사들의 출판분야는 아동·문학·경제분야로 한정돼 있는데, 경험축적에서 자신감이 앞선 아동물과, 초기단계에서 다른 분야보다 접근이 유리한 문학류에 우선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행본 시장에 뛰어들던 대형출판사들이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량면에선 개개의 출판사들이 지난 1, 2년 사이 중형급 단행본사들과 맞먹는 1백여종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독자들로부터의 호응을 그다지 크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실적을 따져볼 때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낮은 전집과 학습참고서 출판사의 상호가 단행본에서는 오히려 독자들로부터 생소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과, 독자들의 도서선택 기준이 작품위주로 전환돼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데 원인이 있다. 을지서적의 김영수부장은 "비록 시장점유율에서 현재로서는 뒤지고 있지만, 막대한 물량과 적극적인 투자로 조만간 자리를 굳히리라 본다"고.

대형출판사의 단행본으로는 드물게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정채봉씨의 「모래알 한가운데」와 이원복교수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낸 동아출판사(대표 김현식)는 87년 하반기부터 약 1백여종을 출판했고, 경제·경영서적을 비롯해 올 한해 60여종을 더 출간할 계획이며, 종합출판사로서의 기틀마련을 위해 시작한 단행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있다.



새롭게 단행본시장에 뛰어들던 대형출판사들이 펴낸 책들.

한편 「올챙이 그림책」(전60권)의 날권판매를 시작으로 에세이·소설·인문, 사회과학서를 주품목으로 택한 웅진출판사(대표 백석기)의 경우, 3월 출판매정인 「소설 임진왜란」을 일본 아사히신문사와 동시발간하는 등 아동물에서 벗어나 성인용 단행본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은 국민서관(대표 이유광)은, 작년 4월 단행본팀을 구성해 성인용 '테마소설 문학선'과 '소설가의 창작동화' 시리즈를 내놓고 있으며, 중견문인들의 해외 기행문집을 기획,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단행본팀의 민병일차장은 "30년간의 수익을 양서출판으로 되돌린다는 것이 회사방침"이라고 말한다.

창사 이후 심심찮게 단행본을 출판했던 삼성출판사(대표 김봉규)는 단행본 부서를 독립시켜 삼성문화개발이란 자회사를 통해, 올 2월 1일부터 기존서적의 재조판 등 손질직업에 나서고 있는데, 자회사를 구성한 이유는 "단행본 출판의 판매방법과 유통경로가 전집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윤구국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형출판사에 소속된 단행본팀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전집물의 편집량이 넘치면 단행본팀의 진행이 중단된 채 인력이 전집쪽으로 투입되는 일이 허다하다. 더욱이 몇십년간 전집에 맞는 편집과 영업구조가 굳어진 상태라, 순발력이 생명인 단행본 시장의 흐름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없고, 다단계의 조직 또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형사들의 단행본 시장 진출에 대한 출판

계의 의견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분분하다. 바람직한 현상임을 강조하는 편에서는, 먼저 재정이 튼튼한 이들이 양질의 원고와 제작비 투자로 독자들을 위한 양서출판에 앞장설 수 있고, 이같은 대형사들의 출현에 긴장한 기존 단행본 출판사들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 서점인은, "그동안 고전 베껴먹기나 하고 안면장사로 현상유지를 하려던 일부 단행본사를 도태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형사들의 단행본 출판은 필요한 것"이라고 전한다.

**시장잠식 우려 속 긍정효과도 기대**

이와는 다르게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출판인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단행본사들이 어렵게 일궈놓은 시장을 대형출판사들이 침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몇몇 대형사들이 물량공세로 서점의 매장을 독점하게 되면, 단행본 출판사들을 크게 위축시켜 단행본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얘기도. 그들은 더불어 대학출판부와 언론사들의 늘어나는 단행본 출판도 단행본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 단행본 출판사 대표는 "대형사가 고료와 선금을 과다하게 지불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관행을 무시하고 자본으로 밀어부치는 식의 논리는 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이유에서 출발했든지, 대형출판사들의 단행본 시장 참여는 가속될 전망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영세한 단행본사들이 못한 미개척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추진과 새로운 필자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출판연구소 김경희 이사장의 지적을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

— 최태원 기자